

姜시장 “지역 우수정책, 통합특별시 핵심 모델 확대”

강진 반값여행·신안 햇빛연금·광주 통합돌봄
인구·경제·기본소득·기본사회 비전으로 확장
완도 해양치유 관광·에너지·스마트수산 육성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 강진의 '반값여행', 신안의 '햇빛연금', 광주의 '통합돌봄' 등 지역 우수 정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 모델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강진군 웰니스푸소에서 열린 '지역 우수정책 설명회'에서 통합특별시 비전을 제시한 데 이어, 완도군을 찾아 '광주-전남 통합 상생토크'를 열고 해양치유 관광과 에너지, 수산업 연계 등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설명회에서 강진군민들과 만나 "대통령도 주목한 강진의 반값여행, 신안의 햇빛연금,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지역 우수 정책은 각각 통합특별시의 인구·경제, 기본소득, 기본사회 비전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시장은 강진의 반값여행에 대해 "단순한 관광 정책이 아니라 지역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관계인구를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며 "인구 3만 명의 강진은 연 300만 명이 찾는 도시가 됐고 지역화폐 소비도 40%가 늘어난 대한민국 대표 생활인구 도시"라고 설명했다.
신안 햇빛연금과 관련, 강 시장은 "태양광 발전 이익을 주민에게 나누고 있다"며 "지역 자원을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해 지방소멸을 막을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소득이 주민의 통장으로 직접 꽂히는 이 모델은 기본소득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선구적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강 시장은 광주의 통합돌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신청주의와 선별주의 벽을 넘어 누구나 돌봄시대를 열었다"며 "시장인 저도 아프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전남광주특별시민은 갑작스럽게 다쳐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사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 완도 생활문화센터에서 '광주-전남 통합 완도군 상생토크'에 참석해 통합 이후 광주-완도 상생 발전 방안을 군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람이 없어도, 일상적 건강관리가 힘들 때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개했다.
강 시장은 강진·신안·광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구상도 제시했다.
강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2개 시·군·구 모두를 '생활권 인구 10배, 지역소비 10배'의 '텐텐도시'로 만들고 신안 모델을 통합특별시의 '햇빛·

바람소득, 데이터소득, 참여소득 등으로 확장해 '기본소득의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강 시장은 "광주의 통합돌봄은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도서형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로의 전환을 시작했다"며 "태어난 곳이 어디든 사는 곳이 어디든 차별 없이 돌봄을 받는 기본사회 돌봄이 실현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완도 생활문화센터에서 신우철 완도군수,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군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토크를 열고 통합 이후 광주-완도 상생발전 방안을 군민들과 공유했다.
강 시장은 완도군 발전 방향으로 ▲광주시의료 인프라와 완도 해양치유 자원을 연계한 웰니스 관광 확대 ▲해상풍력 발전과 수산업이 공존하는 에너지·어업 상생 모델 구축 ▲푸드테크·스마트수산업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완도가 가진 해양·문화 자원을 브랜드화하면 단순한 수산업을 넘어선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을 일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면 청년들이 정착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진기차



'공공수도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道·한전·농어촌공사·영산강청 협약

전남도는 10일 한국전력공사 회의실에서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공공 수도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사진> 협약식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영식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남도는 사업 발굴과 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행정 지원을 맡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규제와 제도 개선 지원, 환경성을 고려한 전력망 확충 지원 등에 나선다.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변전소와 송전선로 적기 건설을 추진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단지 조성을 지원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김재정기차

민형배 “부산-여수-해남-광주 ‘AI 고속도로’ 구축”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 결합
에너지-데이터 신산업 인프라 완성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부산과 광주를 잇는 'AI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 산업의 혈관이라 불리는 산업용 광케이블(다크파이브)을 국가기간망으로 구축해 부산-여수-해

남-광주를 잇는 초고속 데이터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제시한 'AI 데이터 고속도로'는 부산 기장의 국제 해저케이블 거점을 출발점으로 남해안 산업벨트를 따라 구축되는 산업용 광케이블 기반 초고속 데이터 전용망이다.
부산 기장에서 여수 국가산단까지 산업용 광케이블을 설치해 국제 해저케이블 거점과 직접 연결되는 데이터 통로를 구축하고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와 광주 AI데이터센터 하나의 데이터망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민 의원은 여수 국가산단 중화학 업체의 제조 공정 등 기존 제조업에 광주의 AI 기술을 접목해 제조 혁신을 추진하고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전남-광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AI 집적단지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광케이블 인프라가 부족해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AI 데이터 고속도로가 구축되면 전남-광주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글로벌 AI-클라우드 기업 유치 기반을 갖춘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 의원이 앞서 발표한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 공약과 함께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남부권의 신산업 수도로 도약시킬 핵심 패키지 전략으로 꼽힌다.
분산형 RE100 전력망을 통해 값싸고 품질 좋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이어, 초고속 데이터 인프라인 'AI 데이터 고속도로'까지 구축해 전남-광주를 글로벌 첨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민 의원은 "에너지 고속도로와 AI 데이터 고속도로가 결합하면 전남-광주는 글로벌 기업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신산업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와 데이터, 2개 축의 신산업 인프라를 완성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전남-광주에서 다시 그려가겠다"고 강조했다. /변진기차

김영록·신정훈, 같은 건물에 '캠프' 눈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신정훈(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이 광주 소재 한 건물을 동시에 선거사무소로 낙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지사와 신 위원장은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역 인근 7층 규모 건물의 7층과 5층을 각각 선거사무소와 민주당 당내

경선 준비 사무실로 쓰기로 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이날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전남엔 광주 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은 경선에 대비한

광주 상무지구서 '한지붕 두살림' 특별시장 경선 연대 가능성 관심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김 지사와 신 위원장이 선거 캠프로 입자한 이 건물은 광주 중심 상권인 상무역 교차로와 인접해 차량 통행과 유동 인구가 몰려 선거철마다 후보자들 간 선전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김 지사와 신 위원장은 서로 먼저 해당 사무실을 계약했다며 신경전을 벌였으나 결국 분할

해 사용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김 지사와 신 위원장 사이에 관계 설정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김 지사와 신 위원장은 민선 7기 도백(道伯) 자리를 놓고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한 바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8명이 민주당 당내 경선에 도전 의사를 밝힌 만큼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합종연횡이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양시원기차



2025 대통령 표창 수상단체
시민연대 한국나눔연맹
KOREA SHARING FEDERATION

꽃피는 봄에도, 어르신들의 밥상에 여전히 찬바람만 불니다.

텃 빈 냉장고, 다쉬어버린 김치, 말라붙은 라면 국물.
월 2만원, 정기후원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해 주세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

#전국 26개소 무료급식소 운영

#독거노인 기초생활 개선지원



QR 인식

ARS 무기명 후원 **060-708-1004** (1만원)

후원문의 **1811-1004**